

“牛牛... 럼피스킨병, 전남 코앞까지 왔소”

경기·강원·인천·충북·충남 이어 전북까지 확산 ‘방역 초비상’
전남도, 우시장 15곳 폐쇄·발생지 소 반입 금지...전수 조사 나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경기·강원·인천·충북·충남 등으로 확산하면서 한우와 젖소 등 65만 마리를 사육 중인 1만 8000여 전남 축산 농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럼피스킨병 발병 직후 전남도와 축산농가들은 곧바로 철저한 방역 태세를 갖췄지만, 닷새만에 확진 사례가 코앞인 전북에서 나오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뒤, 이날 오전까지 모두 29건(충남 16건·경기 8건·인천 3건·강원 1건·충북 1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이른바 ‘서해안 벨트’인 충남·경기·충북 지역·인천을 비롯해 강원 등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전남과 인접한 전북 부안군 백산면 한우 농장(148두 사육)에서도 이날 오후 첫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남 방역 당국과 축산농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 해남 한우농가에서 기르던 소 1마리에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럼피스킨병 자체 검사를 통해 양성을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직까지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전북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 것으로 판명되면 ‘호남 벨트’가 뚫리게 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 방역 당국도 당분간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기 백신 접종을 추진토록 정부에 건의하고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축산 시설물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차단 방역에 힘써줄 것을 농가에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일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자 우시장 15개를 모두 폐쇄한 데, 이어 25일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시도에서의 소 반입도 금지시켰다. 소 사육두수가 65만 마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만큼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지역 경계를 넘어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빗장을 건 것이



2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한 축사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소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매주 수요일 개장하는 장흥 축산농협의 가축시장이 25일 폐쇄돼 텅 비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전남도는 또 축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예방을 진행중이며, 이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전남지역 13개 시·군 39개 농장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직접 전화와 방문을 통해 사육중인 소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아울러 지역 99개 공동방제단을 총동원해 소독차량(134대)으로 소 사육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집중 소독하고 22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을 진행중이다. 소 사육 농장주에 대해서는 농장 주변 물 웅덩이를 제거하고 해충약과 포충기를 사용해 해충을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우·젖소 등 소 사육농가(1만 8000가)에 대해 임상 증상이 있는지도 매일 전화 예방을 실시하고 흡혈 파리, 모기 등 해충방제 및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긴급방역비 9억 원을 투입해 소 사육농장에 해충구제 약품 및 소독약품 등을 지원해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소 사육농장 관계자 간 모임 금지, 축제 등 행사장 방문 자제,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의 출입 통제,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광주·전남 일부지역 비

광주·전남지역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27일 오전부터 28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고 25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의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22-25도를 보이겠으며 밤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주·전남에 비가 내린 뒤 27일에는 기온이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8-

21도에 분포해 평년(아침최저기온 6-13도, 낮최고기온 19-21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 남쪽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낮 최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10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발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나주~무안 영산강 강변도로 마지막 구간 공사 시작

나주부터 무안을 잇는 영산강 강변도로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시작됐다. 전남도는 25일 무안군 일로읍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강변도로 2-2단계 구간 개설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2-2단계 구간은 무안 일로 북동리에서 오룡지구까지 13.2km를 5년 간 도비 1523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강변도로 전 구간이 이어지면서 오룡지구 개발 시작 후 남악신도시 주민 출퇴근 차량으로 혼잡했던 남악IC의 교통량 분산이 가능해져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광주동구청, 도로 확장 위해 별관 자른다 ▶6면
- ‘이등병의 편지’ 작사·작곡 김현성 인터뷰 ▶16면
- KIA 뛰는 야구, 조재영 코치와 시너지 효과 ▶18면

Mercedes-Benz Certified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